

신앙의 홍보요원

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친밀하게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적대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

한 소녀가 전쟁 중에 시골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.
그 소녀는 신앙을 다 날아빠진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.

그런데 그 농장주인 부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소녀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. 소녀도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.

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

"사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.

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, 어떻게 기도를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.

기독교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.

하지만 나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.

왜냐하면 농장 아주머니를 따라서 믿기만 하면 될테니까요"

그 소녀가 하나님께, 그리고 기독교인의 신앙에 이른 길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였습니다.

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봄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됩니다.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커다란 책임을 지워줍니다.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들어내는 하나의 공개장입니다.

<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/윌리엄 바클레이>

.....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. 「더 깊은 묵상」 제공